

주민이 만든 축제로 화합 도모

무주 삼도봉장터 일원서 '설천면 삼도봉장터 한마당 & 목재문화체험축제' 열려

제1회 설천면 삼도봉장터 한마당 & 목재문화체험축제가 지난 12일 무주군 설천면 삼도봉장터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설천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위원장 백남준)와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심정민)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지역축제를 통해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식전 행사로 '목재친화체험프로그램(나무액자, 대나무파리, 연, 곤충만들기 등)'과 '어르신 무료 장수사진 촬영', '세계음식 및 설천 향토음식 축전', '세계 전통놀이 체험', '마을대항 윷놀이', '투호 대항전' 등을 진행한 후 막을 올린 행사는 오후 3시부터 기념식과 도시재생사업 홍보, 초대가수와 마을주민 한마당 잔치 등의 순으로 개최됐다.

이 시간에는 태권도원 시범단 '비가 비'팀이 '태권도'를 선보였으며 22년 진도가요제 대상을 받은 한수정 씨와 전북도립국악원 판소리 김미정 교수 등도 축하무대를 꾸몄다.

이와 무주군 설천면 관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주민들이 직접 나서



제1회 설천면 삼도봉장터 한마당 & 목재문화체험축제가 지난 12일 무주군 설천면 삼도봉장터 일원에서 개최됐다.

노래와 난타, 댄스, 풍물, 색소폰, 기타 연주 등 부분에서 실력을 뽐내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한마당 행사의 의미는 주민 여러분 스스로 탄생시킨 축제라는데 있다"며 "오늘의 이 귀한 첫 걸음이 설천면 중심지 상가 활성화와 목재친화도시 홍보, 상가·주민 여

러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건강한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재생과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계기도 돼 설천면, 나야 우리 무주가 언제든 오고 싶고 언제나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부부의 날 맞아 모범 부부 표창패 수여

12쌍 부부 수상 영예

진안군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부부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 부부를 선정해 시상했다.

군은 모범부부를 발굴하고 격려해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모범부부는 읍·면장 추천과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2쌍의 부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요 공적으로는 △활발한 지역사회 복지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 부부 △사랑과 신뢰로 배우자의 병환을 부부애로 극복한 부부 △다문화 가정으로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른 을 이해하여 평등한 가족문화에 기여한 부부 등이다.

이날 표창지는 △진안읍 오영근, 최성실 △마령면 김문형, 송봉순 △부귀면 엄준섭, 백승례 △정천면 윤동환, 임종예 △주천면 강병옥, 이일린아파마 총 12 쌍의 부부가 수상했다.



진안군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부부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 부부를 선정해 시상했다.

용, 이연순 △성수면 오영근, 최성실 △마령면 김문형, 송봉순 △부귀면 엄준섭, 백승례 △정천면 윤동환, 임종예 △주천면 강병옥, 이일린아파마 총 12 쌍의 부부가 수상했다.

전준성 군수는 "5월 21일은 둘이 하

나가 되는 부부의 날로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긍정적인 결혼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감자 선발품종 유기농 실증재배

진안군, 유기농 감자재배 클로렐라·복합미생물제 효과 실증

진안군은 지난 12일 유기농 감자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와 협업해 2년차 실증재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재배는 전년도 조사에서 수량은 많으면서도 병 발생률은 적은 고운, 대서, 수미 등 6개 품종으로 선발했으며,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하는 클로렐라와 복합미생물제를 처리해 감자에 주로 문제되는 더랭 이병, 역병, 무름병 등 발생 정도와 수량성 조사를 하게 된다.

클로렐라는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에서 분양한 종균을 분양받아 자가 배양하여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복합미생물(유산균, 효모, 고조균, 광합성균)과 품종별, 처리구별 구획하여 1주 간격으로 처리하여 실증한다.

진안군은 지난 3월 실증시험포장을 조성하여 정식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재배시기별 생육조사와 6월말 수확기 이후 처리구별 수량성, 병해충 발생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복합미생물제 감자재배 기술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합성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 친환경 감자 재배 시 문제가 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앞으로 다양한 실증재배를 통해 적극적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 삼절 순의리 백씨

제례봉행 거행

장수군은 지난 11일 천천면 장판리 타루비각에서 장수 삼절 중 한 명인 순의리 백씨에 대한 제례를 거행했다.

이날 봉행된 제례에서는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가 초현관을,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이 이현관을, 한병태 문화원장이 종현관을 맡아 제례식을 거행했다.

특히 인근 천천초등학교 전교생이 참관해 타루비 제례의 역사와 뜻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83호인 타루비는 1678년 장수 현감이 천천면으로 민정시찰을 나서던 중 말과 함께 떨어져 죽어 그를 수행하던 통인 순의리 백씨가 바위 벽에 '타루(墮馬: 눈물을 흘리다)'라는 두 글자를 쓴 후 스스로 몸을 던져 순절하자 순의리 백씨의 절의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조선시대 비석이다.

장수군은 매년 음력 3월 22일 장수문화원(원장 한병태) 주관으로 제례 봉행을 거행해 오고 있으며, 순의리 백씨의 의암 주둔개, 충복 정경순과 함께 장수 삼절로 추앙받고 있다.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는 "순의리 백씨의 절의를 높이 새기고 후손들에게 그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사과·고추 생육·병해충 조사 나서

무주군이 사과·고추 생육상황 및 병해충 밀도 조사를 위해 관찰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찰포는 지역의 대표 농작물의 개화 상황이나 면적당 주수, 수확량 등 생육상황을 정밀하게 보고 병의 발생이나 병해충 밀도를 조사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지난 3월 관내 사과·고추 농가 중 관찰포를 선정했으며 4월부터는 사과작목의 개화 상황과 병해충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 병해는 갈색무늬병과 접무늬나엽병, 겹무늬썩음병, 단자병, 부린병 등이며 해충은 사과애과와 접박이 등이다. 추가로 청고병과 바이러스병, 진딧물, 담배가루이 등의 발생 동향도 파악할 예정이다.

무주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종철 과장은 "올해는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병이나 해충 발생 여부 등도 꼼꼼하게 파악을 할 계획"이라며 "관찰포 운영이 농사의 변수를 줄이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자른 피해 농가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관찰포를 통한 생육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농작물 관리 방안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뜬봉샘 생태길 걷기 행사 20일 개최

장수군은 오는 20일 뜬봉샘 생태공원에서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금강시랑불체험관에서 시작해 금강발원지 뜬봉샘과 자작나무 군락지를 지난 왕복 4km 거리를 걷는 코스로, 뜬봉샘 생태길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으로 개인 및 가족 단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5월 19일까지 네이버 오피스로 참여 신청해야 한다. 참가비는 1

인당 5,000원이다.

태영군 환경위생과장은 "금강발원지인 뜬봉샘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난 자작나무 숲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걷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 1000리길 코스로는 뜬봉샘 생태길 외에도 장안산 미실길, 방화동 생태길이 있으며, 이번 행사 참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뜬봉샘 생태공원(063-353-7002)으로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수료식 가져

진안군은 민선8기 공약인 종소농업인 가공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조직체 육성을 위해 추진한 2023년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2기)가 교육 수료생 15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가졌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중소농업인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총 10회 과정으로 3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창업절차, 원가계산 등 이론교육 16시간과 기공제조 실습 24시간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8월경에 15농가를 대상으로 편축지원을 위한 사업자별 브랜드 로고 제작 등 교육을 추진해 가공 상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